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늙은 아브라함의 노년은 복 있는 시절이었다. 그가 하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복이 있었다. 이제 남은 바람이 있다면 이삭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자매가 없었다. 가나안은 환경만 척박한 곳이 아니었다.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열악했다. 지나온 삶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난 것은 단 한 차례, 멜기세덱 뿐이었다. 가나안은 나그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목숨을 부지할 것 같은 곳이었다. 그러나 노쇠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될 여인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날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은 종 한 사람을 부른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놓으라 / 창세기 24:2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의 관리를 맡길 정도로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혼인에 대한 모든 선택권을 이 늙은 종에게 맡긴다. 먼 여행길이 고되겠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 하여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종을 택한 것이다. 이 종에게 아브라함은 이삭의 혼인에 대한 전권을 위임한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 창세기 24:3-4

누구 좋은 사람 있는지 알아 보라는 것이 아니다. 이삭의 결혼 상대자를 결정할 권한을 준 것이다. 조건은 단 하나, 이곳 가나안 땅이 아닌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는 것이다. 이 조건은 절대 깨어져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 창세기 24:5

여자가 가나안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찌할까요?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는다. 늙은 종의 걱정은 당연한 것이었다. 어떤 여자가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먼 길을 나서겠는가. 만일 자신이 택한 여자가 가나안으로 오는 것을 거절했을 때 아브라함의 뜻을 따르려면 이삭을 인도해서 주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나를 고향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 땅을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번제로 쓸 양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미리 준비하실 것을 믿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노년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 창세기 24:7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 보다 앞서 갈 것임을 들은 종은 더 이상 묻기를 그쳤다. 주인의 명령대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고 길을 나섰다.